

“科學技術 혁신으로 經濟難局 극복하자”

새로운 次元의 과학기술革新 방향 摸索

民自党 · 科總, 과학기술진흥大討論會 개최

民主自由黨과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5월22일 「經濟難局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대토론회」를 5월22일 각계대표와 과학기술인을 비롯 관계인들이 참석한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학기술대토론회는 民自黨창당전당대회를 기념하여 급변하는 국내외여건과 첨단과학기술발전동향을 감안,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과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조기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혁신방향을 모색코자 열린 것이다.

이날 朴泰俊 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저임금에 바탕을 두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여 왔던 과거의 성장구조에서 탈피하여 '90년대에는 과학기술 혁신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찾아야 하므로 향후 民自黨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체도로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그 추진 방안으로서 과학기술체계의 혁신 및 균형적 발전, 기술개발 투자의 획기적확충,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공급을



◇民自黨과 科總이 마련한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대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조했다.

또한 金龍煥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民自黨은 정책입안 조성 및 추진에 있어서 과학기술진흥을 핵심적인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아 모든 정책을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한 경제제도약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정책기조를 정립,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李祥巖전과기처장관(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체계의 혁신」이란 주제발표에서 과학기

술이 미래국가발전의 핵심적수단이며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을 항시 보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헌법 제127조에 의한 상설기구로 변경해야 하며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과 입법부의 과학기술정책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朴源燾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과학기술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원활한

과학기술계뉴스

수급을 위하여 정부는 전반적인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자연계대학 및 전문대학등의 관련학과를 증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며 연구 기자재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제한된 연구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연구기관을 이용한 Post Doc. 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의 시설개발등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란 주제발표에 나선 박宇熙생산기술연구원장은 기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독립채산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객관적평가, 연구원의 계약고용제등을 채택하여 상품화에 직결되는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특히 수요측면에서 HDTV등 세계 10대 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

치의 원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및 의견들은 당정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경제난국 극복은 물론 21세기 선진산업복지국가로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시책에 반영, 범부처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民自黨관계자가 밝혔다.

韓 · 佛 과학기술협력 강화

양국 科技장관회담, 의정서 교환

韓國과 프랑스는 기초과학·항공우주·해양·원자력분야에서 양국간 공동연구 및 과학기술자교류등 과학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鄭根讓과기처장관과 프랑스의 위베르 쿨리앙연구기술부장관은 5월11일 과기처상황실에서 韓·佛과학장관회담을 갖고 기초과학·항공우주·해양·원자력분야에서의 구체적협력사업에 합의하고 과학기술의정서에서명, 교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과학장관은 한국의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센터(ERC)와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소(CNRS)산하 우수연구집단간의 공동연구협력체널을 구축하고 과학자 상호교류 및 세미나, 워크숍등의 활동규모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93년 과학위성발사를 위한 한국의 기술축적을 위해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소와

프랑스우주과학연구소간에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키로 하는 한편 해사기술연구소와 프랑스해양기술연구소가 심해저탐사장비개발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프랑스 원자력청등 관련기관간에 차세대 고속노심 기본개념연구, 사용

후 핵연료관리기술개발, 환경방사능감시기술연구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유전공학센터와 프랑스의 콩피엔느대간에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대사산물생산 최적화연구를, 한국과학기술원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간에는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대량배양 공정 최적화연구를 공동수행키로 했다.

國立중앙과학관장에 金虎起씨



〈金虎起초대관장〉

初代 국립중앙과학관장(관리관)에 金虎起박사(48·과기처 화공연구조정관)가 5월14일부로 취임했다.

金虎起초대과학관장은 서울出身으로 70년 美國콜로라도공대에서 화공학박사학위를 받았

으며 韓國科學院 조교수 및 부교수(71~78), 과기처심의관(77~78), 駐佛과학관(78~84년)을 거쳐 84년부터 현재까지 과기처 화공연구조정관을 역임했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부장(부이사관)에 李春燮씨, 서무과장에 宋俸鉉씨, 조성과장에는 柳蒼寧씨가 임명됐다.

한편 전임 국립과학관 徐正萬관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로 부임했다.

原子力委員會 기능 강화

위원 7명 長官급으로 格上

政府는 原子力委員會 구성을 長官급으로 격상시켜 원자력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오는 2천년까지 原子力기술 완전자립의 기틀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崔浩中외무부장관, 朴弼秀상공부장관, 金鍾仁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직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당연직위원으로 있는 李承濶부총리(위원장), 李燾逸동력자원부장관, 鄭根讓과학기술처장관 및 安秉華한국전력공사사장과 함께 7인으로 原子力委員會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원회를 개편하게 된 것은 오늘날 원자력산업은 국제협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원전 기자재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청되어 외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한편 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구성됨에 따라 실무 및 전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산하에 15인이상 20인이하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원자력위원회에 안전을 상징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심의토록 하였는데 전문위원회로는 이용개발 전문위원회와 안전전문위원회가 있다.

동위원회의 강화는 지금까지

원전 인·허가 중심의 위원회운영에서 탈피하여 원자력 중·장기정책수립, 원자력안전기술기준 제정, 원전의 자체설계 건설기술 및 중요기자재 국산화심의등을 통한 원자력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大望의 2천년대에는 원자력 기술 수출국으로의 부상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정부는 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개최를 정례화하

고 조찬회 또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위원의 외교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요국가 원자력위원회와 상호위원방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촉진하며 분야별로 원자력정책입안을 위하여 각 원자력위원회내에 필요한 경우 전문분회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주요의결사항이 관계부처에서 존중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原子力法 개정시에 이를 명문화시켜 나갈 방안을 검토중이다.

放射光가속기 建設계획 확정

94년까지 1천3백억 투입, 浦項工大에 설치

신소재연구등 기초과학 및 첨단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放射光가속기가 오는 '94년말까지 浦項工大에 설치된다.

科技處는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정부 6백억원, 浦鐵 7백39억원등 모두 1천3백39억원의 건설비를 투입, 9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방사광가속기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88년부터 浦項工大에서 연구개발에 착수, 현재 개념설계를 마친 방사광가속기는 20억전

자볼트의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로 2백56MD램이상의 초고속집적회로 개발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신소재개발, 단백질구조 규명을 통한 생명공학연구등 선진국 수준의 첨단연구수행 및 종합연구에 활용된다.

과기처는 20만평의 부지위에 이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산업체 대학 연구소등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면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諮問회의」常設기구로

의장에 大統領...元老 7人 위원구성

政府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핵심선도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선진복지사회 건설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國家과학기술諮問회의법(안)」을 成案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동法案은 국가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憲法제127조와 大統領의 과학기술자문기구 常設化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금년말까지 운영토록 限時的기구로 설치된 현행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화하고 자문회의 의장을 大統領으로 하며 자문위원을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의 원로 급인사 7명으로 구성하여 과학기술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등에 관하여 大統領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發明진흥 有功者포상

제25회 발명의 날 기념식

제25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월19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한국발명특허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1세기

유망산업인 생물공학기술 제품 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R&D 투자제고와 특허전담부서 설치 운영등으로 발명특허진흥에 기여한 <주>味元 金塚邦대표이사와 不燃性を 겸비한 代用木材 개발로 수입대체는 물론 산림자원보호에 기여한 한국입체조경 <주>徐建熙대표이사에서 金塔 산업훈장이 <주>청주주물 李喆雨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등 59명의 발명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이밖에도 <주>起亞機工(대표이사 金聖雄)등 우수특허관리업체 2개기업과 京畿 대안중학교(교장 金福榮)등 우수발명반 운영학교 3개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韓·日간 협력사항 諮問

大總統 과학기술자문회의

大統領 과학기술諮問會議(위원장 趙完圭)는 5월16일 상오7시 서울大 호암생활관에서 大統領訪日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사항에 관하여 자문했다.

鄭根謨과학기술처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은 대학간에 과학자 교류 등 기초과학교류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특히 기초과학분야 공동연구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常設기구를 설치하여 韓·日간의 과학기술

교류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日本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상당수 東海岸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할때 긴급사태에 대비한 핫 라인 설치등 韓·日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은 필수적인 협력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의 과학기술정책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科技處가 현행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안)」(가칭)의 주요내용을 보고 받았다.

파키스탄 科技研 설립지원

KAIST, 연구성과등 제공

韓國科學技術院은 파키스탄의 현대적인 과학기술연구소설립에 협력하기로 하고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연구개발체제등에 관한 자문과 연구성과를 제공키로 했다.

파키스탄을 방문중인 李相洙 파기원장은 큐레쉬 파키스탄청 소년장관과 양국의 연구성과를 교환키로하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이 전문기술 및 교육훈련을 맡기로 합의했다.

파키스탄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등을 목적으로 부토총리가 태어난 신드州의 州都인 카라치근처에 부토파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1990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학술대회」開催

科總, 6월25일 高麗大 과학도서관서 開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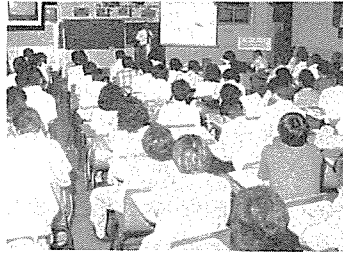
전세계 同胞과학자 대거참석... 尖端과학기술 정보교환

미주지역을 비롯하여 구라파, 일본은 물론 중공, 소련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퍼져 있는 동포과학자와 국내과학기술자 등 5천여명이 대거 참가하는 「1990년도 世界韓民族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6월25일부터 7월7일까지 13일간 高麗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개최된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科學技術處) 후원(한국과학재단협찬)으로 國內外한국과학기술자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술발표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先進化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大韓數學會 등 56개 관련 학회가 참여하며 在外科學技術者 5백여명을 포함 5천여명의 國內外한국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하는 매머드 학술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대회는 6월25일(月) 발표자등록 및 협의회를 시작으로 26일 개회식에 이어 바로 학술발표에 들어가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2~3일 산업시찰, 4~7일 연구 및 교육기관 견학 및 간담회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학술발표는 ▲數



理분과(수학, 통계학) ▲物理과학분과(물리학, 화학) ▲生命과학분과(생물과학, 유전공학, 동물학) ▲地球과학분과(천문, 우주, 지구, 해양 기상) ▲情報産業분과(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材料工學분과(재료공학, 금속공학) ▲産業技術Ⅰ분과(기계, 항공, 정밀공학, 자동차, 산업공학) ▲産業技術Ⅱ분과(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핵공학) ▲農水産분과(농학, 수산, 임학, 축산) ▲醫學·保健분과(의학·약학) ▲政策 및 福祉기술분과(과학기술정책, 환경, 교통, 산업 및 자연재해, 주택)등 11개분과에서 6백여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되며 아울러 전문분야별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 87년에 이어 3년만에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인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美州 지역에서 3백여편을 비롯 독일 영국 불란서 등 歐州 지역에서 40여편, 일본 중국 등 亞州지역

에서 60여편 등 국외에서 4백여편과 국내에서 2백여편 등 총 6백여편의 최신 논문이 발표돼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민족의 과학수준과 기술저력을 전국민에게 재인식시키고 과학풍토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科總은 이번 학술행사가 간동안 우리나라 과학산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수있는 「한국과학기술기 산업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 전시회는 국내외 유명과학기술기 및 제품전시는 물론 국내연구소들의 특정연구 개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고품질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관련제품의 교역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학술대회는 지난 74년 첫 행사를 가진이래 81년까지 종합학술대회 형식으로 매해 열렸으나 82년이후부터는 종합학술대회를 3년에 한번 거행하고 중간의 2년간은 춘·추계 워크숍과 하계심포지움형태로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재외 참가지역외에도 소련, 중국 등 공산권 지역의 동포과학기술자들을 초청, 참가케 함으로써 범세계적 규모의 한민족 학술제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科學財團 大德신청사 준공

産·學·研 연구교류의 장소로 활용

韓國科學財團이 忠南 大德연구단지안에 청사를 신축, 5월18일 상오 鄭根謨과기처장관을 비롯 프랑수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프랑수와 쿠릴스키 원장, 美國과학재단(NSF) 對外협력책임자 칼윌렌브룩박사, 英國과학한림원(RS) 對外협력책임자 스테판콕스박사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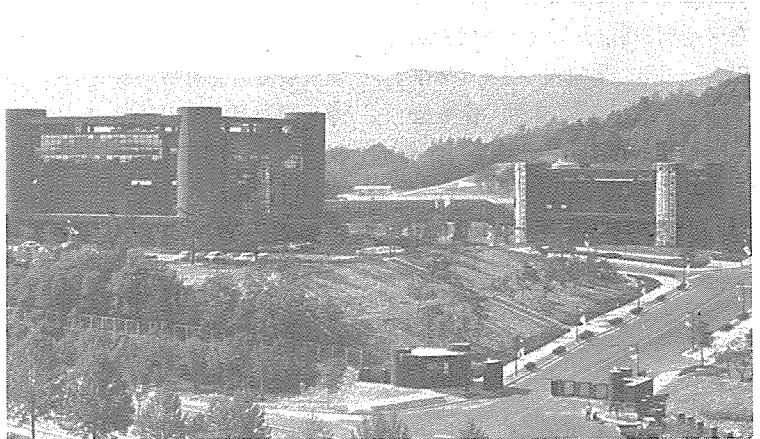


◇재단청사 준공식에서 鄭根謨 과기처장관등 관계 인사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지난 '88년3월 착공하여 2년2개월의 공사끝에 준공을 본 이 신청사는 한국표준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소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만4천3백51평에 연면적 2천4백평으로 지하1층 지하4층의 본관동, 지하1층 지하2층의 産學研교류센터동을 갖추고 있다.

과학재단 신청사는 기초연구활동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협력 교류의 장은 물론 學·研·産연구결과 발표

및 전시장, 국내의 학술세미나장, 학회 학술활동 시설등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협력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韓國科學財團 大德신청사전경.

활용된다.

한편 과학재단은 신청사 준공 및 재단 創立 1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1일부터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먼저 21일에는 프랑수국립과학연구센터, 영국과학한림원, 일본학술진흥회, 미국립과학재단 등 해외과학기술협력기관과 과학기술국제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해외과학기술지원기관과의 과학자교류, 국제학술활동의 효율적추진등 협력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비지원 적정대상大學과 정적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24일 열린 大學연구비지원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동재단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및 대학연구비 관계자, 주요대학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대학연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나은 대학연구지원제도 확립방안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한 24일 우리나라 정치, 사회 및 전통문화배경이 한국민의 창의력발현에 미친 긍정적요인과 저해요인을 각각 분석,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육성의 본질적문제를 확인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민의 창의력 발현을 위한 포럼에서는 「기초과학의 발전과 창의적 사교력」에 대한 趙完圭서울대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소련 레닌그라드과학한림원장인 Zhores I. Alferov 박사의 「소련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특별강연과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밖에도 지역연구센터 개념 설정을 위한 정책설명회와 우수 연구센터(ERC, SRC)세미나도 개최했다.

優秀연구센터 연구활동 開始

6월말까지 13개연구센터 모두 문열어

基礎科學 육성을 위해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韓國科學財團이 선정한 13개 우수연구센터(과학연구센터6개, 공학연구센터7개)가 5~6월 두달에 걸쳐 모두 개소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개시한다.

5월4일 유기반응연구센터를 시작으로 문을 열기 시작한 이들 우수연구센터는 6월말 인공위성연구센터를 마지막으로 13개센터가 모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우수연구센터중 기초과학연구를 주로 하는 과학연구센터(SRC)는 기본연구비로 2~3억원씩, 기업과의 협력하에 엔지니어링을 연구하는 공학연구센터(ERC)는 1~2억원씩이 과학재단으로부터 지급되고 관련기업으로부터는 5억원에서 21억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은 9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3년마다 재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앞으로 건설비를 제외한 순수연구비로 연간 최고 10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13개 우수연구센터의 개소일정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본부대학 및 대표)

▲유기반응연구센터(서강대·윤능민)=5월4일 ▲인공지능연구센터(한국과학기술원·조정

완)=5월10일 ▲위상수학 및 기하학연구센터(경북대·기우항)=5월11일 ▲센서기술연구센터(경북대·손병기)=5월11일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포항공대·이정목)=5월12일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경상대·조무제)=5월14일 ▲동물자원연구센터(전국대·정길생)=5월15일 ▲반도체물성연구센터(전북대·이형재)=5월31일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서울대·이동녕)=6월5일 ▲생물공정연구센터(한국과학기술원·장호남)=6월12일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서울대·하영철)=6월25일 ▲이론물리학연구센터(서울대·송희성)=6월26일 ▲인공위성연구센터(한국과학기술원·최순달)=6월말

소프트웨어研 설립

電氣通信公社, 내년중

韓國電氣通信公社는 정보통신산업의 핵심분야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연구소를 내년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이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기초공학에서부터 응용, 미래기술까지를 총체적으로 연구개발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현재 운용중인

교환기운용 소프트웨어등의 기술자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90년대 중반까지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공 및 처리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프로그래밍어 인공지능을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공사는 이 연구소를 공사線路기술개발연구소 설립을 위해 확보한 大德연구단지내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개발형 中企지원

科技處, 5백개업체에 10억원

科學技術處는 올해 기술개발형 유망중소기업으로 신규발굴 지원 1백개업체, 계속지원 2백50~3백개업체, 성장단계에 들어선 사후관리업체 50~1백개등 모두 5백개업체에 총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개발형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해 1社1연구원원칙에 따라 현장기술지도, 정보제공, 시험분석, 설계제공등의 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을 해주게 한다.

과기처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지원내용을 강화, 종래의 기술지원과 함께 연구소보유 첨단기술의 중소기업접목, 활용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유망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방사선영향 疫學조사 실시
科技處, 영광原電주민 대상

科學技術處는 5월14일 全南 靈光原電 주변 주민에 대한 放射線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주민 疫學 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疫學 조사는 지난해 8월 영광원전 주변 주민의 無腦兒 유산과 최근의 기형동물의 발생 등으로 계속 제기되어온 영광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역학조사를 담당할 서울 大 병원 疫學 조사팀(책임자 高昌舜)은 영광원전 주변 주민 3천명과 대조집단 1천명을 비교, 건강실태조사,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를 벌이게 된다.

한편 과기처는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原電에 대한 對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여기서 나온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古里, 蔚珍, 月城 등 타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해 방사선과 질병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키 위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動物資源연구센터 開所

建國大 축산대학서

畜産立國의 建學정신으로 설립 운영되어온 建國대학교 축산대학의 「動物資源연구센터(대표 鄭吉生)」가 한국과학재단

이 선발한 13개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어 鄭根謨 과기처장관, 건대총동창회회장인 金在光 국회부의장 등 관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15일 동대학의 개교기념일에 개소식을 가졌다.

이 연구센터는 연구활동분야를 육류활용에 중점을 둔 재래의 축산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밍크, 여우 등 포피동물과 곰, 꿩 등 수출산업, 관광산업 및 수렵등과 관련되는 모든 동물자원을 연구함으로써 축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부존 미이용 동물 자원 특히 휴전선일대의 야생조수 등 야생동물의 우수 유전자를 발견해 유전자뱅크를 만드는 장기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이 센터의 鄭吉生 대표(건국대 축산학과교수)는 동물자원연구는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국내 축산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 줄수 있는 학문적·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植物분자 생물학연구센터

진주 慶尙大서 문열어

우리나라 자연과학분야의 기초연구발전과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남 진주소재 慶尙大에 설립되는 「식물분자 생물학 및 유전자 조작 연구센터」(소장 趙武濟)가 5월14일 崔永煥 과기처차관과 과학기술계인사 및 관련교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이 센터는 앞으로 9년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高麗大 李世永 교수 등 30여명의 교수를 중심으로 식물 유전자 구조 및 조직연구, 분자 수준에서의 식물, 미생물 상호작용연구, 식물 세포배양연구, 식물노화현상연구등을 중점연구 과제로 선정, 수행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 「제2의 녹색혁명」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식물생명공학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긴 생장기간과 연구결과 산업화부진 등으로 국내연구가 미진한 실정인데 대규모 투자 및 장기간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에 과학재단이 선정한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된 것이다.

전국自動氣象감시망구축

氣象臺, 기상상황 早期감지

中央氣象臺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등의 異常기상현상을 조기에 감지할수 있는 전국 자동기상감시망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상대는 현재 15개소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치(AWS)를 오는 6월말까지 1백개소로 늘리고 '91년부터 매년 1백대씩 설치, 오는 '93년까지 전국 4백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時間 周波数 방송 24시간 계속

大德 標準研, 「1 분마다 標準時」종일방송

1분에 한번씩 「大韓民國의 標準時」를 알려주는 忠南 大德 한국표준연구소의 시간 주파수 방송국이 5월15일부터 종일방송을 시작했다.

지난 '84년부터 호출부호 HLA 로 매주 월~금요일 8시간씩 (상오 9시~하오5시)방송을 하던 시간주파수방송국의 방송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공위성·천문학연구 및 항해항공 통신등 정확한 시간과 주파수가 요청되는 전자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시간·주파수방송은 현재 출력 2kw로 「S·W」라고 쓰인 단파수신용리시버로 국내 전역에서는 물론 연근해, 중국, 일본에서도 들을 수 있다.

대한민국 표준주파수는 大德 표준연구소 시간표준연구실에서 유지하고 있는 세습원자시계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시각유지 및 시간부호발생장치는 입력된 5MHz의 주파수를 分周하여 시각을 표시, 컴퓨터를 통한 음성합성장치로 방송된다.

표준주파수 시간방송은 현재 세계 20여개국 45개 방송국에서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日本, 中國, 印度, 臺灣등이 표준 주파수국을 갖고 있다.

대한과학기술인단체 6월 학술행사 계획일정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김 진 영	제24차 춘계학술대회	6. 2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한국품질관리학회	이 상 용	전기학술발표회	6. 2	공업표준협회
대한전자공학회	이 상 배	정보통신합동학술세미나	6. 9	프레스센터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손 병 진	하계학술발표회	6. 15	한양대
대한지질학회	박 회 인	공동학술강연회	6. 15	연세대
대한암학회	김 진 복	제1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6. 15	신라호텔
대한광산지질학회	지 정 만	환경지질 및 오염학술강연회	6. 15	연세대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김 순 재	제25회 춘계학술대회	6. 16	서울시보건환경 연구원
한국고분자학회	안 태 완	특별세미나	6. 21-22	서울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 종 철	제 3 차 회원연수회	6. 21-23	유성리베라호텔
한국가정관리학회	유 영 주	제13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 표회	6. 23	경희대
한국자동차공학회	조 경 국	춘계학술대회	6. 23	건국대
대한수학회	윤 재 한	제 8 회 수학교육심포지움	6. 23	전북대
대한전자공학회	이 상 배	New Media와 전자공학세미나	6. 23	대구섬유회관
한국해양공학회	신 민 교	제 1 차 환태평양 아세아해양 공학 국제학술대회	6. 24-28	호텔롯데
한국유허학회	문 탁 진	제11회 학술강연회	6. 29-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영양식량학회	정 승 용	제27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 술발표대회	6. 29-30	진주경상대

과학기술계뉴스



한국물리학회

韓國物理學會는 4월27일 경희대학교수원캠퍼스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회장에 李桂天교수(한국과학기술원)를 선임했다.

제14대 회장인 李桂天교수의 임기는 오는 '91년 5월1일부터 '93년 4월30일까지이다.

한편 총회와 함께 28일까지 실시된 학술발표회에서 鄭根謨 과기처장관의 「기초과학진흥과 국제협력연구」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을 비롯 36편의 초청강연과 「Theory of Gravitational Monopole (조용민 / 서울대)」 등 338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회장 文濟吉)는 4월28일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강연회를 개최, 4억5천만원 규모의 올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韓守根(건설부차관보)·張哲煥(〈주〉대우부사장) 부회장을 인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금년도

학회상을 시상, 高載雄건대교수와 尹載植전북대교수에서 학술상을, 金熙正(주)삼화기술단대표 이사등 4명에게 기술상, 千柄植한양대교수등 3명에게 논문상, 그리고 丁明植포철사장에게는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7월 착공예정인 토목회관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작품전시회를 갖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 새 토목회관은 송파구 오금동 부지2백평위에 지상 8층, 지하5층(연건평 1,200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들어서게 된다.

한편 학술강연회에서 柳長秀 단장(부산발전추진기획단)등 3명의 연사가 부산 해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소개가 있었다.

한국통신학회

韓國通信學會(회장 康昌彦)는 4월2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체신의 날」기념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문명과 문화」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강연회에서는 「원형사관에서 본 한국의 정보화사회(김용운 / 한양대)」 「과학사에서 본 통신혁명(박성래 / 외국어대)」 「조선의 봉수제도고찰과 현대적의미(허신도 / 국민대)」 「정보화사회에 대한 심리학적 전망(이만영 / 고려대)」 「대한제국시대 우표와 우정(진기홍 / 통신사학자)」등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대한광산지질학회

大韓鑛山地質學會는 4월20일 고려대학교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池槓蔓교수(인하대자원공학과)를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閔庚德(연세대교수)·蘇七燮(고려대교수) 부회장을 유임시켰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임계지역 금은 광화작용」등 36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해양학회

韓國海洋學會(회장 沈裁亨)는 4월27~28 양일간 충남대학교 기초과학관에서 금년도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특별강연 1편, 연구논문 40편을 발표했다.

물리해양학분야, 화학해양학 및 해양지학분야, 생물해양학분야, 해양지학분야등으로 나누어 발표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동해 중부해역 지진의 여진이 한국동해안에 미친 영향(추교승)」 「서해 쇄파대어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태원)」 「한강하구와 경기만일대 점토광물에 대한 연구(오재경·박정기)」등 40편의 논문발표와 日本나고야大 Handa Nobuhiko교수의 「Organic Matters and Carbon Cycle in the Ocean」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임상수의학회

韓國臨床獸醫學會는 5월 12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李衡雨씨(李수의과병원장)를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는 南治州(서울대 수의과대교수)·具滋弘(서울가축병원장)·李載昇(연산동물병원)·徐東一(이태원동물병원)씨를 각각 선임했다.

동학회는 총회와 함께 금년도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牛의 빈혈성 질환(高橋清志/낙농학원대학교수)」 「여취섭취가 反芻獸에 미치는 임상병리학적 영향(趙明來/갈촌동물병원)」 「소동물용 STAT CHART(李昌雨/서울대 수의과대학)」 「경기도 화성군 일원에 있어서 소와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관한 조사(李炳千/이가축병원장)」 등 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韓國航空宇宙學會(회장 姜渭勳)는 5월 19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에서 금년도 춘계 학술발표회를 열고 특강 1편과 2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日本 방위대학교 Kimio Kanai 교수의 「Aircraft Active Control and CCV」에 관한 특별강연과 「가스터빈 엔진용 Inconel-718초내열합금의 저주기 피로거동(장석태外/ADD)」

「항공기 지상교정 시험절차 및 응용(주영석外/ADD)」 「태양광 추진 무인항공기의 기초설계(안준外/대한항공연구소)」 「강건한 저차원 제어기설계(남택균外/서울대)」 등 연구 논문 28편이 발표됐다.

대한건축학회

4월 28일 서울대문화관에서 열린 大韓建築學會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辛鉉植중앙대교수, 부회장에 鄭日榮 서울대교수·吳昌熙한양대교수·李廷德 고려대교수가 각각 취임했다.

동학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3월 27일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이들 임원진에 대한 인준과 4억7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금년도 학회상을 시상, 吉正天동국대교수와 金光文한양대교수에게 학술상이, 李相守 선진Eng. 사장에게 기술상, 金鍾星서울건축사사무소대표와 金正湜정림건축대표에게는 작품상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金奭宰<주>기린산업대표이사등 학회 육성발전에 기여한 관련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전국대학 건축(공)학과 졸업설계작품 전시회도 개최됐는데 학술발표회에선 尹張燮서울대교수의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건축고도제한기

준」등 특별강연 3편과 「초고층 아파트먼트의 건축적 형식과 특질(朴吉龍/국민대)」 등 114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약제학회

韓國藥劑學會(회장 金吉洙)는 4월 27일 제약협회강당에서 「신소재와 DDS개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약대 李明杰교수의 「마이크로모리클컨쥬게이션에 의한 항암제의 타겟팅」 日 도규시마대 시마바야시교수의 「Entrapping of Drug Model Polmer in Alginate gels」 등 6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학회(회장 白奉基)는 5월 18~19일간 한국학술진흥재단 5층강당에서 금년도 제1차 고무기술 기초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등 원료고무(崔俊鐵/과기연)」에서부터 「고무의 구조 및 특성(許東燮/국립공업시험원)」 「무기배합제(朴容緒/럭키소재<주>)」 「유기배합제(白南哲/경희대)」 「가공기술(崔在煥/세한양행)」 「배합설계(都弟成/순흥화학공업<주>)」 「시험방법(金鍾奭/국립공업시험원)」 등이 강의됐다.

대한안과학회

大韓眼科學會(회장 禹源植) 제64회 춘계학술대회가 5월11~12 양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망막연구회를 비롯 안병리, 소아안과, 인공수정체연구회등 산하연구회별 학술발표와 심포지움 및 패널디스커션, 초청강연, 연수교육이 있었는데 「안검하수증」을 주제로한 이번 심포지움에선 「안검하수의 분류, 수술전 검사, 수술의 적응증(신환호/순천향의대)」 「안검하수 수술후 합병증 및 그 처치」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있었다.

또한 日本 Fujita-Gakuen 大 Yoshinao Majima 교수의 「Inter and Endocapsular Phaco Surgery as a Modern Concept」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시신경염의 원인 및 병리소견, 임상증상 및 임상검사,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연수교육이 있었다.

한국과학사학회

韓國科學史學會(회장 李燦)는 5월26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33회 전국歷史學대회에서 科學史部 학술발표를 실시했다.

이날 金明子숙명여대이과대학장이 「한국의 과학기술인력의

배출상황에 관한 분석연구(I) : 1981~1988」 金勳基서울대교수가 「클레멘츠의 군집 유기체이론의 성격 : Research Methods in Ecology(1905)와 Plant Succession (1916)을 중심으로」 成映坤서울대교수가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인체해부와 그 배경」 신동민서울대교수가 「Lysenko 주의의 초기형성과정, 1935~1936 : TD Lysenko의 Agrobiology에 나타난 그의 유전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韓國建設技術研究院(원장 李潤植)은 5월9일 교원복지회관 1층강당에서 제2회 건설기술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동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사업중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구조」분야를 비롯 「도로 및 시공」 「토질 및 기초」 「수자원」 「건축」 「설비」 「환경」등 7개분야에서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등 20개과제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유허학회

韓國潤滑學會(회장 文卓珍)는 제5회 유허강습회를 5월2

4~25양일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4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기계유허」를 주제로 한 이번 강습회에서는 KIST 안효석박사 등 6명의 강사가 윤활유 개발추세와 국내의 동향, Tribology 이론과 실제, 특성응용과 현장중심의 고장탐지와 예방대책등에 관하여 강의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大韓醫用生體工學會(회장 韓萬靑) 금년도 춘계학술대회가 5월23일 서울대학교병원 강의실에서 열려 특강2편, 논문발표 6편이 있었다.

특히 「재활공학」을 주제로 건국대 강근교수(의대 의공학과)가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서울대 김철생박사(의대 의공학연구소)가 「Bio-active Ceramic Coatings on Metallic Implants」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했으며 한국화학연구소 고분자제3연구실팀의 「알진이 도포된 인공혈관의 물성평가」등 6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영양학회

韓國營養學會(회장 蔡範錫)는 4월28일 서울대의대 생화학관에서 「'90년대의 국민영양」을 주제로 춘계심포지움을 개최, 「학교급식의 현황과 개선방안」등 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정밀공학회

韓國精密工學會(회장 南宮拓)는 韓國工作機械工業協會와 공동으로 공작기계의 최신기술 경향을 중심으로 新技法을 보급하기 위한 공작기계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28일 한국종합전시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공작기계 주축용베어링의 속도 특성 (Leif Lewinschal / 스웨덴)」 「계측의 기초 및 전기량변화기술 (韓應教 / 한양대)」 「CNC 공작기계의 최신경향 (金雄範 / 대우중공업)」 등이 발표됐다.

한국수산학회

韓國水産學會(회장 李康鎬)는 5월12일 부산수산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금년도 춘계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고 특별강연, 船上煉肉의 품질규격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분야별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선상연육의 품질규격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연육제조 현황 (배옥성 / 오양수산<주>이사)」 「일본의 선상연육품질규격 (이순천 / 동원산업<주>전무)」 「연육의 품질측정방법(서상복 / 국립수산물진흥원연구원)」 등 5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수산가공 및 화학분야, 수산자원분야, 해양환경 및 생물분야등 3개분

과로 나뉘어 발표된 연구발표회에선 「한국산 납작벌레의 독성분)」「가공조건 및 저장조건에 따른 저염젓갈의 품질」「한국남해안 정어리의 산란장 및 산란내유 자원량 변동」등 논문발표와 박맹언교수(부산수산대 응용지질학과)의 「남극의 지질환경과 지하자원의 분포」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趙慶國)는 4월28일 성균관대 공과대학에서 금년도 기관, 연료 및 윤활부문위원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국내윤활유 산업현황과 자동차용 엔진오일의 개발추이 (김재수 / 경인에너지)」 「휘발유 배합제로써의 MTBE(나상천 / 유공)」등 학술강연 6편과 「천연가스와 LPG 사용점화 착화기관의 성능비교 (서승우 外 / 한국기계연구소)」 등 2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대한간호학회

大韓看護學會(회장 洪麗信)는 4월27일 서울대학교병원 A강당에서 「과학의 날」기념 간호학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간호학 연구의 분석모형」에 대한 발표에 이어 보건·행정분야, 스트레

스·건강증진·신체상분야, 간호·중재·임상분야 학술발표가 있었다.

대한의학협회

大韓醫學協會(회장 金在洵)는 4월27~28 양일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금년도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국민 醫保시대에서 醫權신장을 기본방향으로 ▲의료분쟁 및 의료피해보상제도의 기틀마련 ▲의보사업의 민주화 기반조성 ▲의료전달체계확립등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25억6백여만원규모의 올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우리나라 의료제도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정책을 장기적이고도 민주적절차로 수립, 추진할 것과 ▲비민주적인 의료보험법의 조속한 개정 ▲체물진료비의 조속지급 ▲의료인의 신분보장 ▲의과대학의 신설억제 및 의대 학생정원감축등 6개항의 결의문과 國民眼건강의 위해는 물론 醫權침해로 간주되는 眼鏡士의 콘택트렌즈 판매 및 자동굴절검사기사용 반대와 立法化철회를 촉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모범지부와 학회, 유공회원 및 직원에 대한 표창과 제22회 東亞의료문화상, 제12회 綠十字 언론문화상, 제7회 東信 스피클 라인학술상, 제1회 廣惠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해양자원의 지식

許亨澤 著

해양연구소장으로 재직시 우리나라 역사상 첫남극과학기지 진출에 크게 공헌한 저자가 지난 10여년간 해양전문가로서 관심을 두었던 해양자원 전반에 걸친 소개서. 유한한 육상자원의 대체자원으로 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의 시급함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산업,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공간자원등 6개장의 개설에 이어 한국의 해양개발, 미래의 해양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韓國經濟신문사刊 · 문고판 · 174 쪽 · 값2,000원〉

소사전 · 微生物의 수첩

에코 마이크로 엮음

지구 위에는 막대한 수의 微生物들이 서식하며 여러가지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 미생물가운데는 인간의 생활 깊숙히 끼어들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많다.

이러한 미생물들의 생활과 활약상을 소개한 「소사전 · 미생물의 수첩-83가지의 수수께끼를 해명」의 韓國語版이 나왔다.

미생물들의 생활과 활약상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전국적인 집합체인 「에코 마이크로」가 엮은 이 책은 83가지의 미생물의

수수께끼를 ▲사람과의 만남, ▲미생물의 탐색 ▲도처에 있는 미생물 ▲미생물의 서식처와 생활 ▲미생물의 불가사의한 능력 ▲자연속의 미생물 ▲동식물과의 관계 ▲인간생활과의 관계등 총7장으로 나눠 풀어가 고 있다.

〈전파과학사刊 · 신서판 · 205쪽 · 값 2,500원 · 孫永壽譯〉

지구에서 케이사까지

閔英基 著

『인간의 보급자리인 지구는 여러가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류가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인류는 결국 지구를 떠나야만 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 일까?』 이러한 물음에 저자는 『우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다소 난해해 보이는 천문우주학을 일반대중들과 학생들에게 친근한 해설과 필치로 소개해온 저자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컬럼을 중심으로 최근의 정보들을 보완해서 묶은 것이다.

〈범양사 출판부刊 · 국판 · 338쪽 · 값 4,000원〉

새로운 有機化學

崎川範行 著

생물의 몸은 수많은 유기화합물의 집합체이며 이러한 유기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되므로

유기화학을 떠나서는 우리들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日本 東京工業大 명예교수인 崎川範行씨가 저술한 「새로운 유기화학-탄소화합물을 다시 살펴본다」라는 제하의 이 책은 화학을 공부하고 또 화학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진 유기화학의 안내서.

이 책에서는 유기화학이란 유기화학의 기초물질, 유기합성과 석유화학, 석유화학의 유도체생물이 만드는 유기화합물, 생화학이란 등 모두 6장으로 구분, 유기화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파과학사刊 · 신서판 · 201쪽 · 값 2,000원 · 朴澤奎譯〉

地球환경보고서

레스터 R. 브라운外 著

환경분야에서 세계적 명망을 얻고있는 「월드워치 인스티튜트」에서 1984년부터 조사연감으로 펴내고 있는 「지구환경보고서」는 90년대를 맞아 더욱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세계 17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다. 금년부터 한국어판이 발행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독자들도 이 권위있는 보고서를 접하게 됐다. 한마디로 이 책은 생태적 위기상황을 지구적 차원에서 통찰력있게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본격적 평론집이다. 〈도서출판 따님刊 · 국판 · 398쪽 · 값 7,000원 · 김범철, 이승환譯〉

「매연再燃焼소음기」개발

李辰相씨, 디젤自動車用 배기소음기



디젤자동차의 배기소음과 유해가스를 지금의 절반이하로 크게 줄일수 있는 소음기(일명 머플러)가 개발돼 대기오염에 찌든 도시지역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코리아 임펠社 대표인 李辰相(43·전주시 풍남동)가 지난 '81년부터 10년동안의 각고 끝에 개발에 성공한 「매연재연소소음기」는 기존의 소음기와는 달리 특수양은 주물과 흑연철판등을 원료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직경27cm의 특수 양은 주물통 내부에 프로펠러와 같은 임펠러를 장착, 이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 배기가스가 이곳을 통과하면서 타게 하고 배기소음도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다.

지난 4월19일 특허청의 발명특허 제32666호로 등록된 이 소음기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 배기소음이 85.5~86dB로 기존제품의 95.7~96dB에 비해 10dB이 낮으며 매연도 1.2도로 기존의 5도에 비해 7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음기는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직행과 고속관광버스 트럭 붐고 지프 특수중장비등 모든 디젤용 차량에 적합하게 설계돼 대기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디젤유는 燃比가 높은데다 대량수송이 가능해 세계 각국은 디젤차량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나 배기가스의 매연이 심하고 황산화물을 비롯한 악취물질과 발암물질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규제강화와 함께 이의 방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 메가 비디오램 量産

三星電子, ASIC메모리제품

최근 국내 반도체업체가 ASIC (특정용도 IC) 메모리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HDTV, 디지털 VTR, 워크스테이션등 관련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대표 姜晋求)는 5월11일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ASIC메모리 제품인 1메가 비디오램(Video RAM)의 개발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1메가 비디오램은 컴퓨터의 고속, 고화질의 그래픽기능을 전담하는 VLSI반도체로서 CPU (중앙처리장치)와 연결되어 화상정보를 기억하는 디램과 디램에 기억된 화상정보를 단말

기화면에 전송하는 Serial 메모리기능을 원칩화한 새로운 화상 전용처리용 메모리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1메가 비디오램을 금년초에 개발에 성공하여 시제품생산을 해오다가 이번에 해외업체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본격 양산에 들어갔으며, 비디오램시장이 확대될 올7월부터는 월 10만개수준으로 출하할 계획이다.

1메가 비디오램은 세계적으로도 도시바, TI社등만이 개발에 성공하여 최근에 양산에 들어간 최첨단 ASIC메모리제품인데, 삼성전자는 이번 1메가 비디오램 양산을 계기로 ASIC메모리분야에서 선진 반도체업체와 동등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국내 ASIC메모리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박막 트랜지스터 開發

金星社, LCD부품素子

金星社는 액정디스플레이(LCD)의 핵심부품素子인 박막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金星社가 40억원을 투입, 2년여의 연구끝에 이번에 개발한 박막트랜지스터는 화면의 점에 走査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LCD의 획기적인 畫質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LCD는 계산기 램탑 PC영상 기기 OA기기 TV등에 화면처리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LCD구동(화면주사) 방식으로는 화면이 이그러지는 단점이 있다.